

제7회 '한국공학상'

세계 정상급 수준 공학자 3명 선정

서울대 한민구 교수, KAIST 이종원 교수, KIST 이화섭 박사



과 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은 제7회 한국공학상 수상자로 서울대학교 전기컴퓨터 공학부 한민구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이종원 교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재료연구부 이화섭 박사를 선정하고, 시상했다.

이번 수상자는 지난해 8월에 공고하여 9월 중순까지 접수한 결과, 추천된 25명을 대상으로 1차 세부분야 심사, 2차 분야별 심사를 거쳐 과학기술계 인사 19명으로 구성된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됐다.

한민구 교수는 폴리 실리콘 TFT의 특성 향상 및 신뢰도 개선 연구를 복합적으로 수행하였다. 한 교수는 폴리 실리콘 TFT의 핵심적 문제인 그레이 인 바운더리 및 디펙트가 어떻게 소자에 영향을 주는지를 이론적으로 규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레이저 어닐링 방법을 제안하고 마스크가



한민구 교수

필요 없는 새로운 GOLDD 구조 및 읍셋 구조로 국제특허를 취득했다. 특히 한 교수의 연구 결과는 기업에 접목되어 메모리, 핸드폰과 더불어 우리 나라 IT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TFT-LCD 사업이 세계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저변을 확보하게 했다.

이종원 교수는 '회전체 역학 및 진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학자로 특히, 1993년에 저술한 '회전체의 진동 분석'은 창의적이고 실용성 높은 회전체 역학 분야 연구로 평가되고 있다. '회전체의 진동 분석'은 기계공학 분야 국내 최초의 영문판 저술로 이 교수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 후 순수하게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단독 저술했다.

이외에도 학술연구 실적(국제 저널 94편, 국내 저널 74편, 해외

학술대회 127편), 학생교육실적(석사 100명, 박사 44명), 산학 연구 과제 수행 및 저문 활동, 사회봉사 활동 등 기계공학의 학문적 발전과 산업기술에 기여한 점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화섭 박사는 지난 1993년 원진레이온 비스코스 공장 폐쇄로 국내 인건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리오셀 신소재에 관한 연구로 실험실 기초연구에서부터 산업화까지 성공하는 쾌거를 이루어 국내 셀룰로오스 산업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이종원 교수



이화섭 박사

박사가 개발한 셀룰로오스 생산기술은 한국이 아시아 최초의 리오셀 생산국가가 되는 밑거름이 되었다.

1994년 제정되어 격년으로 시행하고 있는 한국공학상은 세계 정상급 연구성과를 이룩해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한 과학기술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현재까지 전기, 기계, 화학, 토목 등 공학분야에서 총 18명이 배출되었다.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은 한국공학상 시상제도를 통해 과학기술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뛰어난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수상자에게는 대통령상장과 5천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

글 | 편집실